

니체와 히틀러

“어떤 사람은 죽은 뒤 다시 태어난다.” 니체가 남긴 그 말은 그 자신에게 특히 걸맞는다. 탄생 150주년(10월15일)을 맞이한 올해, 그는 또다시 태어났다. 실존주의와 해체주의의 쫓겨난 구실을 했던 그의 철학이 대대적인 재평가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최근의 외신에 따르면, 그의 반유대주의는 반유대주의자였던 그의 누이가 그의 작품을 마구 각색한 탓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니체가 혐오한 사상은 그를 오용 내지 악용했던 파시즘이었다. 히틀러는 무솔리니와의 회견 때 「니체 전집」을 선물하기도 했다.

히틀러는 니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도 덧칠했다. 그러나 「나의 투쟁」의 거짓말이 폭로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나는 장차 화가가 되어야겠다”거나 “그림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태만히 굴었다”는 등 미술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인 브레히트는 1933년에 쓴 시에서 한낱 ‘칠쟁이’였다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독일 전체를 온통 잘못 칠해서 더럽혔다네.” 「나의 투쟁」에서 자술한 히틀러의 성장과정은, 거짓말 조금 보태어, 태반이 거짓말임을 훗날의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히틀러와 책과의 악연은 분서(焚書) 사건으로까지 비화된다. 1933년 5월 10일, 문화공보성 장관 괴벨스의 지휘 아래, 독일의 모든 대학도시에서는 나찌스가 금지한 책들이 불태워졌다. 분서대상이 된 작가의 숫자는 131명이었다. 131명에 속하지 못한 ‘양심적 지식인’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브레히트는 그런 지식인의 심정을 노래한 시를 남겼다. 제목은 「분서」(「살아남은 자의 슬픔」, 김광

규 역, 한마당).

위험한 지식이 담긴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리라고

이 정권(政權)이 명령하여, 곳곳에서 황소들이 끄고대며 책이 실린 수레를 화형장(火刑場)으로 끌고 왔을 때, 가장 뛰어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방된 어떤 시인이 분서목록을 들여다보다가

자기의 책들이 누락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서 나는 듯이 책상으로 달려가, 집권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나의 책을 불태워 다오! (중략)
언제나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장자처럼 취급한단 말이냐! (후략)

히틀러가 불태운 책들의 목록과 그 내용을 알 길은 없다. 아마도 ‘반체제적’인 책과, 독서 자체가 목적이 되는 비실용적인 책들이 아닐까 짐작되기도 한다. 다음은 「나의 투쟁」(황성모 역, 동서문화사) 중 ‘독서법’의 일부이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첫째로 독서는 각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끌어내고 그 골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조력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독서는 각 사람이 자기 직업에—그것이 원시적인 밥벌이든 비교적 높은 사명을 만족하

기 위한 것이든—필요한 도구나 자재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독서는 일반적인 세계상을 매개해야 하는 것이다. (중략)

나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르게 읽도록 노력해 왔다. 그와 동시에 다행스럽게도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좋았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비인(Wien)시절은 얻는 바도 많았고, 가치있는 시절이었다. 일상의 생활경험은 여러가지 문제를 언제나 새로이 연구해야 한다는 자극을 주었다. 마침내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실제에서 시도해 보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나는 이론 속에서 질식하던가 현실 속에서 천박화(淺薄化)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때도없이 가방송의 책들을 검속하던 풍경이 일상이던 때가 있었다. ‘투쟁’이란 단어는 일언이폐지하고 나쁜 말이었으므로, 「나의 투쟁」을 가지고 다니던 학생이 경찰서 ‘보호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야 했던 희극도 연출됐다. 그 시절의 최고권력자의 자서전이 널리 유포되기도 했다. 최근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자서전의 대필자였던 한 소설가는 권력 앞에서 곡필을 했던 그 치욕과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 5년 동안 원양어선을 타고 돌아다녔다.

훗날 누군가가 그 자서전에 무수한 각주를 달아놓지 않을까? 마치 히틀러 「나의 투쟁」 주석란에 “그러나 이 설명을 많은 히틀러 연구자들은 믿지 않고 있다”거나 “이것은 전혀 믿어지지 않고 있다”고 쓴 것처럼. 그런 대목을 만날 때, 히틀러가 미워지기보다는 독일인들이 존경스러워진다.

출판저널

통권 제160호 / 1994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왜 이토록 엄청난 의학적 발견이 묻혀져야 했는가?

“도롱뇽이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할 수 있다!”

도롱뇽은 잘려나간 팔다리는 물론 심장까지도 완벽히 재생해 내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일까? 30년에 걸친 집념의 연구 끝에 로버트 베커 박사는 인체도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힌다. 이 책 《생명과 전기》는 그 연구의 충실한 기록인 동시에, 한 옹고집 의학자가 타성에 젖은 기성의학계와 정부를 상대로 외롭게 벌인 드라마틱한 투쟁의 기록이다.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발견을 기성의학계는 왜 이단시했으며, 정부와 軍 당국은 왜 암암리에 연구의 진행을 방해했을까?

- ◆ 재생과 치유,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전기!
- ◆ 침술, 초감각, 암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규명된다!
- ◆ 생명의 기원은 반도체성 유기물, 빼는 압전 소자로 되어 있다!
- ◆ 지금 핵무기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로버트 베커 외/공동철 옮김/값 7,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

신간!

생명과 전기

THE BODY ELECTRIC

인체의 재생·치유·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아서